불자 세상보기

김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로스쿨의 '용량'과 '취지'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기관이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에게 한신이 말한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일화에서 보듯이 좋은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듯한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한 조선시대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지금의 변호사보다 좋았을 것이다. 약 70만자인 사서삼경을 열심히 암기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고, 급제하면 대략 3족이 흥한다고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늘어나지만 한편으로 농업이 기본인 조선시대에는 공직이 많지 않고, 적은 공직을 둘러싼 자리싸움이 벌어져 결국 당파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과거급제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공직을 늘리는 것이다.

과거제도가 사라진 지금, 변호사가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로서 법을 어떻게 만들면 유리한지 잘 안다는 점도 물론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것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되면 좋은 것, 첫 번째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재판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재판의 대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변호사법에 의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을 법에 규정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우회적으로 소송을 부탁하는 신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정되고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신탁법은 이 점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소송을 위한 신탁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판에서 대리인이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변호사라는 국가자격이 필요한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공직이 있다. 누구나 잘 아는 판사와 검사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위 공직 중에는 변호사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최고의 공직인 대통령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선거에 당선되면 될 수 있다. 대통령 다음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도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반드시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현직(顯職)인 대법관과 재판관 도합 22명은 대략 1만명 정도인 변호사자격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꼭 변호사일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를 우대하는 법률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데 국민은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사법연수원 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판사와 검사에게는 공직을 수행한다고 지원을 하고 변호사에게는 분쟁을 처리해준다고 대개 보험도 없이 수임료를 준다. 여기에 중요한 공직까지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가 좋은 자리인 이유는 국민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취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하는 모두가 좋은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기회를 주되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로스쿨과 새로운 사법시험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좋은 변호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 사회에 배출되는 좋은 변호사를 처음부터 줄이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몇 명 정도 만들지는 우선 교육기관인 로스쿨의 손에 달려 있다. 적절한 수의 좋은 변호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스쿨에서는 그만큼 교육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알게 된 학생은 아쉽지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로스쿨의 교육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로스쿨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길러낼 수 있을지가 문제되지 좋은 변호사를 많이 길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힘들다. 좋은 인재는 길러내면 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불자의 눈

마곡사의 공정선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상호 비방과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 않을 것,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마곡사 차기 주지 선거에 출마한 양산, 법용, 무일, 원혜 스님이 이 3가지를 서약했다. 구두 서약이 아니라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다. 공정선거 투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마곡사 주지 선거는 이미 그 타락상이 전국에 알려져 버렸다. 거기다 주지스님이 비리로 구속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깨끗한 선거 잡음 없는 선거는 종단의 위신과도 직결되어 있다. 입후보한 스님 네 분이 이의 없이 공정선거 서약을 했고 총무원장스님의 각별한 부탁도 있었다니, 마곡사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장점과 효율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마곡사 뿐 아니라 많은 교구본사가 선거 때문에 위계가 깨지고 분열이 조장된다는 우려를 해 왔다. 오죽하면 "선거 때문에 종단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래서 일부에선 선거제도를 폐폐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선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사회나 악법은 존재한다. 문제는 악법이 원래 악법인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하여 악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선거제도도 그런 측면이 있다. 공공연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치수를 쓰는 것이 관례로 인식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는 가운데 종단은 여기저기서 멍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치료시기를 놓치기 전에 강한 처방을 하자는 분위기다. 이달 31일 치러지는 마곡사 선거는 조계종의 선거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바가 상당히 크다.

'10·27' 더 큰 논의를 할 때다

해마다 10월이면 가슴이 아파오는 스님들이 있다. 1980년 10월 27일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이 있다. 무장 군인들의 무자비한 군화발이 법당을 휩쓸고 다니고 스님들이 강제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에 망신창이가 된 그 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픈 기억은 세월이 가도 새록새록 한데, 그날의 '역사'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다. '10·27 법난'으로 이름 지어진 그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극히 미진했고 불교계의 명예회복 노력 역시 미약했다.

어느새 20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사건 뒤의 사건들을 파헤치는 일련의 성과가 발표 되었을 뿐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0월 25일 그간 진행해 온 10·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이 사건 전후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짙게 보고됐고,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일어난 불교탄압이란 점,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의 뜻에 반하는 성향이었던 것이 사건 촉발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점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동기나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다.

'종교자유' 칼럼 33. 김영삼 前 대통령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적 편견으로 꽉 막힌 장로 대통령, 종교갈등 부추기다

올해 7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3대 종교 지도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종교편향적이었던 대통령으로 1위가 김영삼 대통령(42.7%), 2위는 이승만 대통령(30.0%)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스님 70.8%와 신부 48.9%가 김영삼 대통령을 꼽은 데 반해, 흥미롭게도 목사의 경우 8.9%만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답한 반면 50%가 이승만 대통령을 꼽은 것을 보면 종교간 미묘한 정서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엄격히 집행하는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공공장소에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본 일이다. "당선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던 개신교인들과의 철없는 약속을 지키는 맹신자의 모습이었으며, 그 후 수 년 동안 종교문제로 바람 잘 날 없으리라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청와대 예배'가 물의를 일으키던 날, 일간지에는 개신교가 거의 국교에 가까운 미국이란 나라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예배를 보러 교회에 가기 위해 백악관을 빠져 나와 무릎까지 찬 눈길을 걷는 사진이 실려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종교 챙기는 데 극치를

역대 대통령중 가장 종교편향적인 대통령 1위로 꼽힌 김영삼 前 대통령

이룬 것은 '국군중앙교회 예배사건'일 것이다. 그가 1996년 1월 21일 국방부 내 중앙교회에서 김광일 비서실장, 이양호 국방장관, 권영해 안기부장 등 공직자들을 대동하여 공개적으로 일요예배를 보는 모습은 TV와 신문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도되었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무지한 김영삼 정권의 장로집단에게 종교간 형평이나 군대의 사기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최고통수권자라면 마땅히 다른 종교시설도 둘러보고 그 종교를 가진 장병들도 격려해야 한다.

더구나 개신교 장병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던 당일의 일직과 당직을 모두 불교인 또는 가톨릭 장병으로 강제로 바꾸었고 경호상의 이유로 법당과 성당의 출입까지 통제하였다. 이 무슨 해괴한 공권력인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립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타종교 장병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박탈했다는 위헌적인 일이 빚어진 것이다.

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H.W.부시(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라크 전장을 둘러볼 때 개신교 병사들로부터 예배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그는 "미국의 군대는 개신교 군대가 아니다. 비록 내 종교가 개신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종교의 의식에도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종교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하나"라면서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한다.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나침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현실이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인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前 대통령의 또 하나의 종교편견 사례. 그를 대통령으로 모셨던 이수성 前 국무총리는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만해상 심사위원장과 해인사 동판불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만해라는 인물과 팔만대장경이라는 인류문화유산은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만한 정신적 자산이라는 불교계의 설명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가 2년여 전 동판불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다니며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좋은 일 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준 데 반해, 유독 김영삼 대통령만은 "곤란한데…"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개인의 종교를 떠나 자국의 전통문화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마땅하고 그 보존사업에 동의정도는 해줄 아량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취임 첫해 11월에 내한한 일본의 호소가와 총리가 불국사를 참배할 때도 다소곳이 합장하는 총리와는 대조적으로 뻣뻣이 서 있던 장로 대통령의 그 옹졸한 모습에 국민들은 부끄러워했다.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도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반면에 문화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종교적인 편견이 심해 개신교 장로와 대통령 신분을 구분 못하였기에 그의 재임기간 동안 타종교인들은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최근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는 어쩌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본다.

김영삼 장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즐겨 쓰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은 과연 어떤 뜻으로 마음에 새겼는지 궁금하다. '문은커녕 담조차 없이 완전히 열린 상태'가 아니라 '쪽문 하나도 없이 꽉 막힌 답벼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